

연구와 전시

어린이는 언제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5월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공존의 울림, 한국 범종의 소리에서 찾다 |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 첫 번째 전시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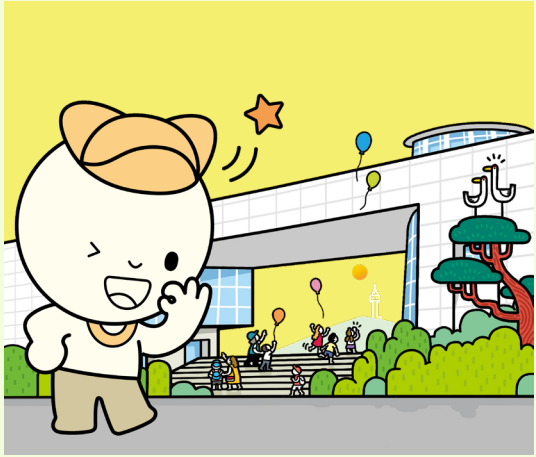
기억의 서랍

소장품, 박물관을 지켜온 힘

사람과 이야기

건축의 도시 시카고에 펼쳐질 한국의 美 | 한국실 및 한국 문화유산 특별전
꿈을 꾸는 어린이에게, 꿈을 찾은 어른이 전하는 이야기 |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참가자
보물을 찾아 떠나는 두지의 좌충우돌 모험기! | 그림책 「두지의 마법 향아리」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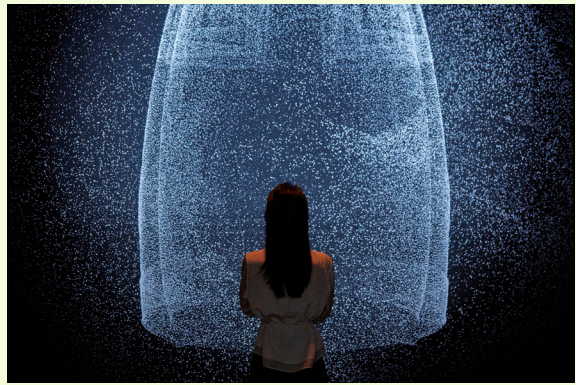
‘정담精談’과 ‘상상想像’이 펼쳐지는 5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Photographer Oliver Killig



10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14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 첫 번째 전시 〈울림〉



22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연구와 전시

04 가정의 달 특집

어린이는 언제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10 전시

마나 모아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13 전시 예고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만나다

14 전시

공존의 울림, 한국 범종의 소리에서 찾다

16 교육

박물관 전문성 레벨업! 내 직무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

18 디지털 전시

박물관에서 고양이와 호랑이를 마주한다면

사람과 이야기

20 잠시 멈춤

오월의 아이들아, 맘껏 놀자, 함께 놀자

22 기억의 서랍

소장품, 박물관을 지켜온 힘

28 K-뮤지엄

건축의 도시 시카고에 펼쳐질 한국의 美

30 인터뷰

꿈을 꾸는 어린이에게, 꿈을 찾은 어른이 전하는 이야기

32 출판

보물을 찾아 떠나는 두지의 좌충우돌 모험기!

34 주요 소식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38 박물관문화향연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5년 5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흥인 류정한 이민수 이진민 이태희

이현주 전인지 최성애 황은순 황지현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인쇄 (주)태광피앤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45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어린이는 언제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정담^{情談}'과 '상상^{想像}'이 펼쳐지는 5월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다정한 이야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의 5월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교육, 심리, 건강, 미래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린이에 대한 따뜻한 통찰을 전하는 '정담^{情談}', 5m 높이의 대형 반가사유상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박물관 곳곳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아 스스로 큐레이터가 되어보는 '상상의 박물관'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즐겁게 놀고, 자유롭게 바라보며, 스스로 생각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간. 다정한 상상으로 가득할 국립중앙박물관의 5월, 그 설렘 가득한 소식을 전한다.



어린이가 궁금한 어른에게 드리는 정다운 이야기, 정담情談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심리·건강·미래 전문가 인터뷰 제작



바로가기




5월 7일 | 신중호(서울대 교육학과)
잘 놀면서도 똑똑한 어린이로 키울 수 있나요?




5월 14일 | 김경일(아주대 심리학과)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잘 소통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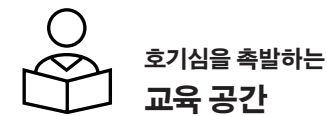



5월 21일 | 천근아(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다양한 어린이를 어떻게 공감하며 키울 수 있나요?



5월 28일 | 조영태(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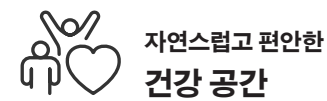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과거에 어린이였거나 현재 어린이이다.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주 특별한 ‘어린이에 관한 정다운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어린이의 교육·심리·건강·미래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박물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까지 알차게 모았다.



호기심을 촉발하는
교육 공간

신중호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서울대학교 신중호 교수는 ‘학습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을 유발하는 공간’으로의 박물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며 이런 호기심이 촉발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 바로 박물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건강 공간

천근아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세브란스병원 천근아 교수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어린이박물관은 ‘장애, 비장애 어린이 모두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환영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양한 어린이가 살아가는 현대의 ‘신경 다양성’ 사회에서, 어른들이 어린이의 부족함보다는 가능성과 장점을 발굴하기에 힘쓰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 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명사와의 ‘어린이에 관한 정다운 이야기’가, 과거 어린이였던 부모는 자녀를, 미래 어른이 될 자녀는 부모를 새롭게 바라보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한다. 박물관 또한 어린이와 미래 관객을 다각화된 접근과 확장된 시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 명칭: 명사와의 ‘어린이에 관한 정다운 이야기’ 정담情談
- 내용: 어린이의 교육·심리·건강·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박물관 인터뷰
- 일시: 2025년 5월 매주 수요일 20:00
- 송출: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네이버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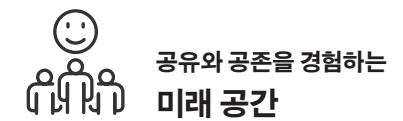
특히, 이번 인터뷰는 전문가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 전시실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촬영하며 진행하였다. 2005년 용산에서 문을 열고 20주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박물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네이버 TV 채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족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안전하게 방향하는
소통 공간

김경일 교수(아주대 심리학과)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박물관이란 ‘특정한 목적 없이 안전하게 방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공간에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체험의 유의미함을 조망하였다.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 때는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면서 지켜봐 주는 태도가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공유와 공존을 경험하는
미래 공간

조영태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교수는 인구수와 개인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미래를 전망해 볼 때, 박물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유와 공존을 경험하는 최적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짚어주었다. 어린이박물관의 미래 관람객을 생각해 볼 때, 조부모와 어린이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를 보편적 맥락에서 깊이 있게 구현할 필요성도 피력하였다.

- ① 5월 7일 | 신중호(서울대 교육학과)
잘 놀면서도 똑똑한 어린이로 키울 수 있나요?
- ② 5월 14일 | 김경일(아주대 심리학과)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잘 소통할 수 있나요?
- ③ 5월 21일 | 천근아(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다양한 어린이를 어떻게 공감하며 키울 수 있나요?
- ④ 5월 28일 | 조영태(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글. 박연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어린이와 함께하는 ‘상상의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5월 행사, 상상하며 즐기는 공연·전시·체험 기획



어린이의 눈을 사로잡는
대형 조형물
야외 전시 | 상상의 반가사유상

즐겁고 흥겨운 공연 무대
공연 | 상상의 무대
공연 | 상상의 놀이터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박물관
체험 활동 | 상상의 전시
체험 활동 | 상상의 박물관

박물관은 어린이에게 어떤 공간으로 다가가야 할까? 수십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들이 가득한 박물관은 어린이에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영감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며 가장 주안점에 두

었던 것이 바로 박물관이 어린이들의 상상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이었다. 어린이들이 박물관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가져감과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본인들의 상상력과 시각에서 이해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 ‘상상의 박물관’을 기획하였다.



어린이의 눈을 사로잡는
대형 조형물

5월 한 달 동안 박물관의 야외 공간 ‘열린마당’에는 높이 5m에 달하는 대형 반가사유상 조형물 두 점을 설치한다. 이름하여 ‘상상의 반가사유상’, ‘사유의 방’이라는 고요한 공간에 위치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불상을 캐릭터화하고 크게 전시하여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였다. 어린이들은 ‘상상의 반가사유상’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예술에 대한 흥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특별히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한 마임 퍼포먼스도 준비하였다. 어린이들이 조형물과 마음을 함께 즐기며 반가사유상을 더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박물관






박물관의 핵심 요소는 역시 전시다. 이를 어린이들이 자기 방식으로 스스로 경험하고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상상의 전시’는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포스터를 색칠한 뒤, 완성한 작품을 전시실 벽면에 붙여 나만의 전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색칠 활동과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시를 연계해 보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상상의 박물관’은 활동지를 들고 상설전시관을 돌아다니며 나만의 보물을 찾고 스티커를 붙이며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유물을 지정하여 찾으러 가보는 것을 넘어서 박물관 안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체험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를 담고자 하였다.



즐겁고 흥겨운
공연 무대

박물관이 조용하고 딱딱한 공간이 아닌 흥미롭고 즐거운 장소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전통 풍물과 국악 밴드 공연, 마술쇼와 버블쇼 등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버블쇼는 어린이들이 무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5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어린이 뮤지컬 <넘버블록스>와 <할머니의 여름휴가>를 10분 길이로 보여주는 특별 공연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하였다.

‘상상의 박물관’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및 장소	참여방법
야외 전시	 상상의 반가사유상	· 높이 5m의 대형 반가사유상 조형물 2점 전시	5.1.~5.31. 10:00~18:00 열린마당	
공연	 상상의 무대	· 전통 공연(풍물), 마술쇼, 국악 밴드 공연 · 뮤지컬 <넘버블록스> 및 <할머니의 여름휴가> 10분 특별 공연	5.1.~5.6. 11:00~17:00 열린마당	
	 상상의 놀이터	· 버블 퍼포먼스 및 어린이 참여형 체험	5.5.~5.6. 11:00 열린마당	현장방문 (무료)
체험 활동	 상상의 전시	· 특별전 <마나 모아나> 포스터 도안 색칠 활동 후 완성작을 전시실 벽면에 부착하는 체험	5.1.~5.6. 10:00~18:00 열린마당	
	 상상의 박물관	· 활동지를 받아서 상설전시관을 돌아다니며 나만의 보물을 찾아보는 체험		

가족 단위 관람객은 박물관의 중요한 관객층이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가정의 달 행사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박물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따뜻한 공간, 모두의 소중한 추억이 쌓여가는 공간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글. 엄채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학예연구사

마나 모아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2025.4.30.~9.14.

국립중앙박물관은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관장 에마뉘엘 카자레루)과 공동 기획으로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Mana Moana-Art of the Great Ocean, OCEANIA>(이하 <마나 모아나>)를 개최한다. 전시는 4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마나 모아나>는 그간 한국에서 접하기 쉽지 않았던 태평양 문화권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며, 오세아니아 예술과 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18~20세기 오세아니아 전시품 171건과 현대 오세아니아 작가들의 작품 8점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예술의 다층적 면모를 살펴본다. 시간의 층위를 아우르는 전시 구성으로 오세아니아의 유산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전하고자 한다. 전시 제목인 <마나 모아나>는 이러한 기획 의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폴리네시아어로 마나(Mana)는 모든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을, 모아나(Moana)는 경계 없는 거대한 바다를 뜻한다. 이 둘의 결합은 오세아니아 예술 전반을 관통하는 세계관-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경외와 바다의 신성함-을 응축해 보여준다.

특별전은 ‘바다’라는 공간, 그리고 항해와 정착의 과정(제1부)에서 시작한다. 지역적으로는 멜라네시아(제2부)의 이야기와 폴리네시아(제3부)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펼쳐 나간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과거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섬의 전통 문화와 문화 정체성의 이야기를 조망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공감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각 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 얼굴과 베기 머리를 조각한 갈고리 Suspension Hook 파푸아뉴기니, 동세픽주, 세픽강 중류 19세기 나무, 안료 로베르 쇼블로(1879~1937) 기증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



©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photo Claude Germain



©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photo Claude Germain

제2부 **삶이 깃든 터전**
오세아니아의 멜라네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이곳 공동체는 자연과 조상을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며, 공동체와 영적 질서의 상징으로 예술을 발전시켜 왔다. 제2부에서는 멜라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조상 숭배와 신성한 공간, 권력과 교환 의례 등 공동체 중심의 세계관을 선보인다. ‘남자들의 집’, 의례용 조각과 가면, 장식물 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시각화하며, 예술이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드러낸다. 관람객은 이 공간을 통해 오세아니아 예술이 삶과 공동체, 신성함의 삼중 구조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3부 **세대를 잇는 시간**
폴리네시아 지역은 광활한 해역을 넘나드는 항해의 문화권이자, 조상과 신화적 시간에 대한 인식이 깊게 자리한 세계이다. 특히 독특한 시간 개념, 즉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과거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없는 미래는 등 뒤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서구의 시간 개념과 완전히 반대이다. 이러한 시간은 단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인 개념으로 세대 간의 기억이 끊임없이 공유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제3부는 이러한 시간 개념 속에서 조상 숭배와 신화, 마나와 타푸(Tapu, 신성한 금기)라는 개념으로 시간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살펴보는 공간이다. 조각상, 제의용 장신구, 직물은 조상의 존재를 보여주고, 예술은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또한 여성의 손으로 이어지는 직물 작품은 세대 간의 기억을 담은 문화적 실천으로 소개된다. 이 전시는 관람객에게 오세아니아 예술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시간의 흐름임을 일깨운다.

카누 뱃머리 조각상, 옹구주옹구주 Canoe Prow Figure, nguzunguzu 솔로몬 제도, 서부주, 뉴조지아섬 19세기 나무, 안료, 파리나리움 수지, 자개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



제4부 섬… 그리고 사람들

오세아니아 예술의 정수는 몸과 삶에 스며든 공예에 있다. 특히 장신구는 자신을 꾸미는 도구이자, 신분과 정체성, 신과 자연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제4부 공간에서는 오세아니아의 장신구와 예술품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미적·상징적 관계를 탐구한다. 자개, 깃털, 고래 이빨 등 자연의 재료로 만든 장신구들은 정교한 기술과 미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착용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관계성을 드러낸다. 관람객은 이 작은 예술품들 속에서 오세아니아인의 삶의 태도와 우주에 대한 감각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공간은 '사람'이라는 렌즈를 통해 오세아니아의 철학을 다시금 응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세아니아 예술이 지닌 역할과 의미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 위기 시대에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고 모든 존재를 동반자로 삼는 오세아니아의 전통적 세계관은 기후 변화로 위기를 맞은 오늘날 인류 공동체에 지속 가능한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또한 신화와 조상을 예술로 되살리는 방식은 세계화 시대에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문화에 뿌리를 두면

서도 타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자세를 배우게 한다. 나아가 공동체 중심의 예술 제작은 예술이 개인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 구성은 과거의 유산이 현대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며, 앞으로의 문화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바다가 섬과 섬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듯, 오세아니아의 예술은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제공한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이국적인 예술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예술적 통찰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오세아니아 예술은 과거의 조상과 오늘날 우리를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종의 도구임을 깨닫게 한다. 예술은 단절된 세계를 이어주는 언어이다. 그리고 이 언어는 태평양의 목소리가 되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글. 백승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전시 예고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만나다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2025.6.10. 화 ~ 8.31. 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1

모든 시작은 가치 있다. 그러나 어떤 시작은 더욱 특별하다.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된 수많은 새로운 시작 중에서도, '조선'의 건국은 무엇보다 새로운 의미가 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 시대의 시작을 열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부터 16세기까지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체계가 형성되고 문화가 성숙해 간 시기였다. 특히 유교 이념에 기반한 사고 체계와 일상 의례부터 한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문화의 기틀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에 개관한 지 20년을 맞이한 2025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개최한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미술의 혁신과 변화를 조명하는 전시다. 조선 전기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이상과 미의식이 등장했고, 이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새 미술을 만들어 냈다. 전시에서는 조선의 시작과 함께 의미가 더해진 흰색, 먹색, 금색의 3가지 주요 색으로 새로운 미술을 소개한다.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으로 전국의 도자 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고, 기술을 발전시켜 눈처럼 새하얀 백자를 탄생시켰다. 유교 국가의 집권층으로 부상한 문인 사대부는 유교적 이상세계를 검은 먹으로 그린 수묵산수화에 투영했다. 한편 유교의 시대에도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신앙으로서, 변치 않는 금빛으로 빛나는 미술을 남겼다.

이 시기의 미술은 남아있는 수량이 적고, 그마저 국내·외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조명이 어려웠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70여 개 기관이 소장한 400여 건의 작품을 한 자리에 소개한다. 이 중에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20여 건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내 출품작 중에서도 80여 건에 달하는 국보·보물을 만나볼 귀중한 기회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 그 새로운 미술을 만나길 바란다.

글. 김영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공존의 울림, 한국 범종의 소리에서 찾다

국립중앙박물관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의 첫 번째 전시 <울림>

지난 3월, 상설전시관 3층 조각공예관의 금속공예실과 청자실 사이에 '공간_사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감각전시실이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의 첫 전시로 한국 범종의 소리를 주제로 한 다감각 체험전시 <울림>을 선보였다.

<울림>은 한국 범종을 대표하는 국보 <성덕대왕신종>(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을 소재로 한다.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맥놀이'라고 하며, <울림>에서는 이러한 <성덕대왕신종>의 소리의 원리에 주목하였다.

'공간_사이'에 울리는 범종의 소리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는 가로 10m, 세로 10m 정방형 공간이다. 체험전시 <울림>을 위해 이곳 중앙에 폭 4m, 높이 4m의 대

형 LED 화면 구조체를 배치하였다. 영상 안에서 <성덕대왕신종>의 거대한 존재감을 구현하되 공간의 자연스러운 개방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LED 영상에서는 한국 범종의 소리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음파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마친 후 실제 타종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공간의 네 모서리에는 <성덕대왕신종> 맥놀이의 주요 원인인 저주파수대 소리를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우퍼스피커를 배치하여, 음파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 체험과 범종음에 대한 청각 체험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였다.

대형 LED 화면 구조체의 뒤편에서는 청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종의 소리는 부처의 음성을 멀리멀리 전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과 별도로 범종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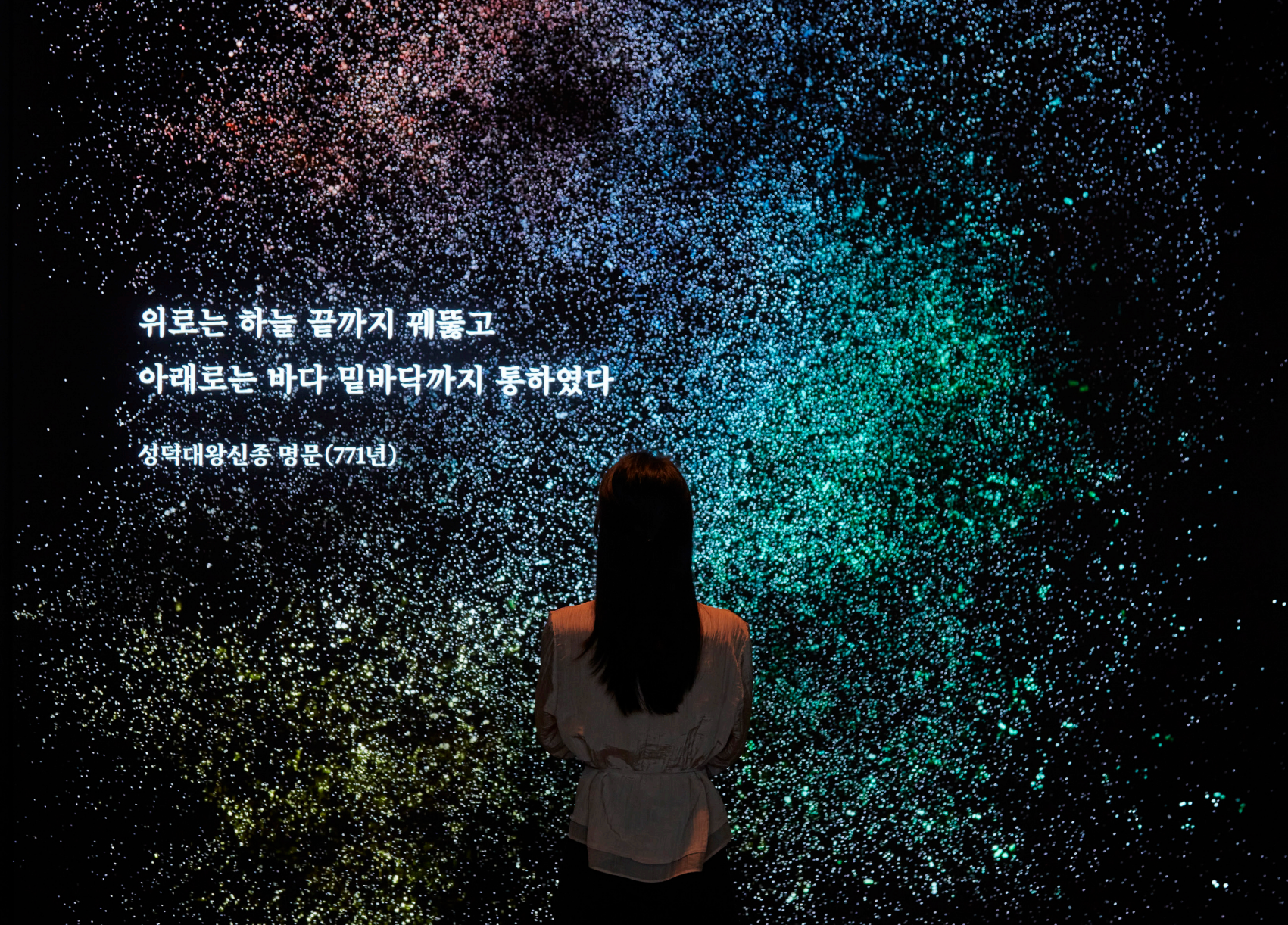
공간 입구 양쪽에 놓인 의자와 LED 뒤편 청음 의자에는 셰이커shaker를 부착하여, 범종음과 함께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동 체험은 범종 소리의 시각화와 더불어 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소리 체험 기회를 선사하고자 한 의미가 크다.

대형 LED 화면 구조체의 양쪽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실제 재질 축소 모형과 범종의 재료인 구리와 주석, 범종을 타격하는 당목의 재료로 쓰이는 느티나무를 만져볼 수 있게 했다. 이 촉각 체험은 범종의 소리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더해줄 것이다. 또한, '성덕대왕신종' 자세히 보기'와 '범종의 소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영상 QR 안에 담아,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로는 하늘 끝까지 꿰뚫고

아래로는 바다 밑바닥까지 통하였다

성덕대왕신종 명문(771년)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감각 체험

'공간_사이'는 시각·청각·촉각 등 다감각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메시지와 방향성을 뚜렷이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해 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주로 물리적인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의 '무장애Barrier-Free'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눈에 띄는 편의시설보다는 상설전시관 내 다른 전시실과의 조화 속에서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고자 하여, 가장 중점을 둔 방식은 한국수어와 음성해설이다.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는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로 2016년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 공식화되었다. <울림>에서는 공간 형태와 같은 정방형의 전시 패널에 한국어를 제시하고 '한국

수어-음성해설-큰글씨-영어'의 4개 QR을 하단에 배치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한국어와 4개의 QR이 동등하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이 중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한국수어로, 한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서 한국수어를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한국수어는 <울림> 전시 공간의 중심에 있는 대형 LED 영상에서도 범종의 소리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주체가 된다. 가상의 메타휴먼Meta Human에 실제 농인(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사람)의 한국수어를 표정까지 모션 캡처하여 덧입혔다.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은 오디오가이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전시실 내 여섯 군데 패널의 QR을 통해 제공되는데, 패널에 제시된 내용뿐 아니라 관람에 이해를 돕는 내용들을 두루 담았다.

<울림>의 전시 패널 QR에서는 패널의 한국어를 큰글씨로 별도 제공하였다. 이는 어린이 혹은 휠체어 이용자 등과 같이 전시 패널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관람객을 위한 것이다.

범종 소리의 원리인 맥놀이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간섭에 의한 것이다. 범종 형태의 비대칭성과 표면의 비균질성에 의해 미세한 차이가 있는 주파수가 생겨나고 이것이 강한 맥놀이를 가진 좋은 범종음을 가져온다. 이러한 범종의 소리와 울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공존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서로 다른 주파수가 어울려 좋은 범종음을 내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때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글. 임진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박물관 전문성 레벨업! 내 직무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플랫폼



기초과정-소장품 다루기 기초



기초과정-전시품 설치연출



기초과정-전시품 설치연출



심화과정-전시품 설치의 원칙과 의미



심화과정-조각 공예품의 다루기와 포장



심화과정-대형 석조 유물의 이동과 설치

직무 고민을 해소하는 실질적 교육 기회

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박물관 전문인력 교육의 허브,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이하 ‘뮤지엄 아카데미’)가 2025년도에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뮤지엄 아카데미’는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심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립박물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전수한다. 특히,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등 분야별로 직무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소하는 실질적인 배움의 장으로 기능한다. 박물관 현장의 변화와 전문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 교육과정은, 전국의 국공립박물관 학예인력 및 예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재교육 플랫폼이다.

올해는 3기를 시작으로 4기, 5기, 6기까지 총 네 차례의 특화과정이 운영되며,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이 강화되었다. 4월 8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운영된 3기에는 기초과정 40명, 심화과정 37명, 기획과정 3명 등 총 113명의 학예인력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실질적 고민을 다룬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다”, “강사진 구성과 강의의 깊이에서 차별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뮤지엄 아카데미’라는 고유 브랜드 구축

‘뮤지엄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서 브랜드화 및 홍보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과는 올해 ‘뮤지엄 아카데미 홍보·브랜드’ 사업을 통해 보다 넓은 박물관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지도 기반을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뮤지엄 아카데미’만의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하고, 로고·슬로건·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여 다양한 시각 매체에 통합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제작, 웹 배너·영상 콘텐츠 기획 등 디지털 중심의 콘텐츠 확산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 전문성과 교육 정보를 담은 홍보 영상, 강사진 인터뷰 영상, 수강 후기 중심 콘텐츠 등은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수강신청 확대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현수막, 브로슈어, 기념품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과 함께 체험형 행사를 병행하여, 현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계획 중이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새로운 기준 제시

2025년 ‘뮤지엄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총 세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째, ‘특화과정’은 국립 및 공립박물관 재직 학예인력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초-심화-기획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통해 직무별 역량을 고도화한다. 둘째, ‘일반과정’은 박물관 예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박물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과정이다. 박물관 역할, 소장품 이해 등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

털, 접근성, ESG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분야별 과정’은 보존과학,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전시음향 등 고도화된 실무 역량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실습형 교육이다.

모든 교육과정을 집합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로 병행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은 수강 후 뮤지엄 아카데미 플랫폼(museumacademy.co.kr)을 통해 매뉴얼 영상, 주제별 온라인 강의를 상시 학습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뮤지엄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박물관 현장과 함께 성장하며 진화하는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이 되고자 한다. 수료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5년 ‘뮤지엄 아카데미’는 총 4기의 특화과정과 함께, 예비인력 대상 일반과정, 고도화된 분야별과정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며, ‘현장 중심, 참여 중심, 콘텐츠 중심’의 3중 전략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 학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박물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가능성과 전문성을 확장하며 박물관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공동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글. 조혜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박물관에서 고양이와 호랑이를 마주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새 파노라마 영상

“화면 속의 풍경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 1관을 다녀간 한 관람객의 소감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했던 생생한 몰입 경험에 대한 감상이었다. 2025년 5월 디지털 실감 영상관 1관에서 화면 속 꽃과 풀벌레, 고양이, 물고기를 눈앞에서 만나고, 춤추는 호랑이를 보며 어깨를 들쩍일 수 있는 색다른 실감콘텐츠 2종을 선보인다. 새로운 콘텐츠 〈화조영모, 어느 고양이의 하루〉와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가 〈강산에 펼친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이후 3년 만에 찾아왔다.

화조영모, 어느 고양이의 하루

18세기 변상벽 그림 속 고양이는 지금의 삼청동 북악산 백련봉 일대를 누비며 하루를 보낸다. 옥호정의 사랑채 앞마당에서 한가로이 놀던 고양이는 남계우가 그린 나비를 따라 집 밖의 비드나무숲으로 향한다. 신사임당 그림 속 수박밭에서 쥐를 쫓고, 신명연이 그린 꽃밭에서 향기에 취하며, 어해도를 감상하듯 냇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며 여유를 즐긴다. 해가 다 질 때쯤 에야 아쉬운 듯 지친 듯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고양이의 하루는 마무리된다.

카메라의 시선은 고양이와 나비, 새를 따라 이동하며 우리 옆의 작은 생명들을 밀착하여 담아낸다. 60m 화면에 가득 펼쳐지는 3D 모델링한 꽃과 나무, 풀벌레, 새, 고양이, 물고기 등은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국악과 현악을 넘나드는 멜로디에 자연의 소리를 채운 이지수 감독의 음악은 고양이를 따라 즐겁고 경쾌하게 흐른다.

고양이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디서 본 듯하지만 낯선 그림이 장면마다 등장한다. 영상 마지막의 원화 정보를 볼 때쯤 ‘아, 이 그림이구나’를 알 수 있다. 2D의 회화를 3D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박물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관람객들이 즐겁게 고양이의 하루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양이와 참새 猫雀圖
변상벽(1726 이전-1775)
조선 18세기
비단에 색
93.7×43.0cm
약수1003



옥호정 玉壺亭圖
작가 미상
조선 19세기
종이에 엮은 색
150.3×193.0cm
중9355
이훈녕 유족 기증



호랑이 猛虎圖
작가 미상
조선 18세기
종이에 엮은 색
96.0×55.1cm
M67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랑이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있을까? 웅장한 음악과 함께 까만 화면에서 호랑이가 눈을 깜빡인다.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맹호도〉속 호랑이의 눈이 사실은 고양이의 눈이다. 그럼에도 터럭 하나하나 3D로 구현한 호랑이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화면 가득 용맹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그리고 화면은 자수실로 가득 찬다. 조선시대 무관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호랑이 흉배에는 구름, 산, 물, 바위 등 가장 좋은 것들의 중앙에 호랑이가 위치한다. 신통한 호랑이는 경쾌한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춤을 추며 해학과 재치가 가득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준다.

다시 한번 화면은 조개껍데기 가루가 반짝이는 나전으로 바뀐다. 할머니의 촌스러운 장롱 장식이라고 여겼던 나전칠기는 이제 영롱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화면 가득한 나전 베갯모와 상자, 탁자 속 문양은 그 자체로도 화려하고, 그 속의 호랑이 모습은 유쾌하다. 60m 화면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소소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으니, 다 보려면 3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전통문화 속 소재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 친근하고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었다. 〈화조영모, 어느 고양이의 하루〉는 ‘전통회화가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구나’라는 느낌 속에서 우리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용맹하고, 신통하며 유쾌한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를 만나면 카메라 셔터를 눌러 취향별 마음에 드는 호랑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미감을 담은 여러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는 관람객이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더욱 가깝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 이 콘텐츠를 보고 나오는 관람객이 이런 소감을 적는다면 어떨까.

“화면 속에서 신나게 놀고 가는 듯한 느낌이야.”

글. 김진경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오월의 아이들아, 맘껏 놀자, 함께 놀자

재미난 여러 놀이에 한창인 아이들의 모습이
병풍 속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어른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아이들 세상이죠.

놀이에 잔뜩 몰두한 환한 표정의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아이들은 중국풍의 차림새를 하고 있지만
방패연 날리거나 떡 감기와 같은
우리네 전통놀이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며 <백동자도百童子圖>를 그렸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따사로운 봄이 한창입니다.
가족의 달 5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의 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글. 권혜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백동자도 百童子圖

작가 미상
조선 19세기
비단에 색
10폭 병풍, 각 89.6×32.5cm
구3235



20 2005
202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소장품, 박물관을 지켜온 힘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이야기하다

국보·보물 396점을 포함해 10만여 점에 달하는 문화유산은 2002년부터 2년여 간의 준비 작업과, 8개월간의 이동을 거쳐 2005년 용산에 새 동지를 틀었다. 투입 인원만 8천 명, 5t 무진동 차량 490대가 동원된 그야말로 ‘초특급 대규모 이사’였다.

‘제대로 된 보금자리’ 없이 10년마다 이사를 반복해야 했던 지난한 시간 속에서도 국립박물관은 꾸준히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오늘날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성장했다. 그 중심에는 소장품이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격동의 시대를 지나온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은 유물이라는 범주를 넘어, 박물관인들의 품과 손을 거친 특별한 존재이자, 역사와 오늘을 잇는 연결고리로 거듭났다.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소장품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의 변화,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미래 방향을 들어보았다.



참석자

성낙준 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유식 전 국립제주박물관장

김세원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경수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사상 최대 규모의 문화유산 이전, 새 자리로 함께 옮겨온 시간과 기억

성낙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보금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물관 직원들에게는 소장품을 다루는 섬세한 기술과 이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운송 업체에 우리가 기술을 다 가르쳐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1세대 흥빈기 선생부터 김홍식 학예연구관, 오늘 함께 자리 한 김세원 실장으로 이어지는 유물 포장 기술은 외국인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오자마자 반복하게 되는 포장 실습 덕분이었겠죠.

용산 이전은 이러한 박물관인들의 탄탄한 경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만여 점의 문화유산이 움직이다 보니 대규모 수송 작전이라고도 했죠. 이는 지난했던 국립박물관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모든 박물관인의 경험과 지식, 염원을 담아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재구 규모만큼이나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 석조 문화유산의 이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의 설계와 소장품 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맞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지요. 특히 높이 13.5m의 경천사 십층석탑은 여러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국제 설계 경기 공모 조건에 경천사 십층석탑을 역사의 길 중앙에 세우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지만,



경천사 십층석탑 완공 기념 행사

관람 동선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어 여러 차례 설득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유식 관장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죠.

김유식 경천사 십층석탑은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하고 복원까지 총 10년(1995년~2005년)이 걸렸습니다. 복원 작업을 위해 해체했었던 142개의 대리석 부재를 높이 13m까지 쌓아야 하는 상당한 고난도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탑을 인수할 때부터 고민이 컸죠. 책임감이 막중했기에 제 인생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립박물관 직원들과 석재 전공자들이 함께 설계 과정과 조건들을 반복해서 검토하였고, 철제 면진대 위에 화강암 지대석을 놓은 뒤 탑을 조립 순서에 맞춰 복원하기로 했죠. 복원 과정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용산의 새 박물관 1층 동쪽 문을 개방해서 석탑재가 들어오던 그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또 천운이 따라주었던 것에 대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준 경천사 십층석탑은 아시다시피 그 규모만큼이나 큰 아픔의 역사를 겪었지요. 경기도 개풍군 부소산에 있던 경천사에서 일본으로 밀반출되고 1918년에 반환받은 후 경복궁

경내에 있던 것을 복원하여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온 것인데,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규모 7.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면진 받침대를 국내에서 특수 제작한 첫 사례이기도 하죠. 또 완공 기념식의 규모나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선후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재구 박물관에 옮겨 놓은 옛 보신각 동종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죠. 무게만 하더라도 단일 문화유산으로 가장 무거운 약 24t이고 높이가 3.7m인데, 문제는 견고한 포장과 안전한 이송은 물론이거니와 경복궁에서 용산까지 총 9.5km 중간에 있는 3개의 육교였습니다. 안전한 통과를 위해 저상 트레일러를 이용했음에도 종을 포함한 총 높이가 평균적인 육교 높이를 살짝 초과하는 4.6m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가능한 육교를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짜고 거기에 더해 신호등과 전선 등 여러 장애 요소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이를 줄이기 위해 바퀴 바람을 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정도예요. 가장 이상적인 이동 날짜를 고르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기상 자료 통계를 참고했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여 비슷한 무게의 물건을 실어 예행연습도 거쳤습니다. 실제 이전 작업 당일엔

도로의 전깃줄 하나가 걸려 끊어졌는데, 다행히도 사용하지 않던 전깃줄이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화도 있습니다. 당일 아침 고유제를 올린 뒤, 엄동설한도 잊게 한 취재 열기 속에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용산까지 달려온 70분. 그 긴박하고 뜨거웠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용산에 올 때만 해도 석조 문화유산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외 정원의 조성은 어렵지만 손조롭게 진행했습니다. 국보와 보물급 문화유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외에도 여러 절차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야외 전시로 정원을 꾸며보자는 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조 문화유산은 국립박물관 개관 이후 반세기 동안 한 번도 전시나 도록에 소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설계하고 소장품을 배치해 보는데, 정원의 흙이 자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다져진 생토층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만든 성토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소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4m 이상의 깊이로 땅을 파서 먼저 탄탄한 지반을 조성하기도 했죠.

지금 와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박물관 건물 앞의 염거화상탑을 포함한 승탑들의 위치입니다. 원래는 야외 정원에 갔



경천사 십층석탑 복원 작업 광경



옛 보신각 동종 포장 및 이전 모습

어야 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지금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커다란 박물관 건물 규모나 아우라^{Aura}에 비해 작아 보이게 된 게 아닌가 후회도 됩니다. 언젠가는 승탑들이 정원으로 옮겨가서 석조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이 머무는 곳, 수장고의 진화

성낙준 용산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장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장고라고 하지만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공간이었기 때문에 관리에 여러 어려움과 불안이 있었죠. 반면에 용산의 새 수장고는 과거 우리가 겪어온 불편함이 대폭 개선되었고 금속류, 도토류, 서화류, 목재류 등 재질에 맞는 수장 환경을 갖추게 되면서 작업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김세원 외부 공간과 수장고 사이의 공간에 오염물질, 먼지, 해충 등의 유입을 막아주고 급격한 온습도 변화를 예방하여 환경 변화를 완충해 주는 ‘전실^{前室}’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또 용산으로 옮겨와 가장 좋았던 점은 전시실과 수장고가 가까워서 동선이나 접근성 면에서 훨씬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점이었어요. 지상층인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엄폐 구조로 설계해서 보안에 신경 쓴 점도 안심이었어요.

이경수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는 건축적 설계 단계부터 소장품의 보존과 관리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축하였고, 외기와 접한 공간이 거의 없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습도 유지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벽체 역시 특수한데 이중벽 구조를 이루는 덕분에 단열 및 온습도 유지 성능도 뛰어납니다. 수장고 내부에 사용할 재료 또한 섬세하게 선별했습니다. 조습 기능을 가진 다양한 소재를 공간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소장품의 특성에 맞춘 보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층고를 7m 확보하여 필요시 유연한 확장을 가능하게 한 점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국보 반가사유상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

한편 2010년대부터 국가귀속발굴매장유산이 급증하여 수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국립박물관은 국립나주박물관 호남권역수장고(2013년), 국립경주박물관 영남권역수장고(2019년),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수장고(2021년)를 개관하였습니다. 특히 국립공주박물관은 2018년 당시, 453%의 수장률로 매우 심각한 과포화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향후 30년간 약 170만 점의 국가귀속발굴매장유산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어요. 수장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유럽 기술에서 진일보한 ‘2층형 모빌랙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면적이 약 5,795㎡(1,800평)에 불과한데도 150만여 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전체 수장고를 열람 가능한 ‘관람형 수장고’로 구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장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와 확충, 국립박물관의 내일을 열다

성낙준 1980년대에 소장품 표준화 작업을 위해 전산작을 처음으로 채웠어요. 물론 그 전에는 수기로 작성했었는데, 국가로 귀속되는 유물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소장품 목록을 전산화하기 시작했고, 1995년도에 발간한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의 표준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계기로 소장품분류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이 기준을 국립박물관과 전국의 박물관이 함께 사용하는 범용성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용어와 오류는 바로잡았고 한국전쟁 때 흩어졌었던 유물을 찾아 목록으로 재등록한 유의미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소장품 관리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과 실천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소장품 확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소장품 구입의 시작은 1980년대이지만 웅산 이전을 계기로 소장품 구입비가 대폭 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걸맞은 소장품을 확보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품도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중요한 축이죠.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국립경주박물관 영남권역 수장고 '신라천년보고'



지난해 새로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김세원 맞습니다. 웅산 이전을 대비하면서 말씀하신 유물 구입에도 적극적일 수 있었고, 기증 문화도 활발해져서 소장품을 비약적으로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소장품분류 코드에 ‘증’이라는 입수형 코드를 새로 만들기도 했고요, 기증은 오래전부터 국립박물관의 조사·연구와 전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간혹 ‘국립박물관은 중요한 문화유산만 기증받나’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국립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전시 및 조사·연구 활용에 적합한지, 그리고 보존할 대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증을 받습니다. 최근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기증자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기증관이 개편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경수** 국립박물관으로 입수되는 소장품의 큰 비중은 역시 국가귀속발굴매장유산입니다. 중앙과 소속관을 포함하여 최대 약 15만여 점까지 급증했다가 2010년대부터 지자체 박물관에도 위임이 가능해지면서 국립박물관은 현재 연평균 7만 점 정도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입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보관관리협의회 정례화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민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재구 소장품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언드리겠습니다. 수장고는 안전한 보관 위주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문화유산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 익숙한 물건들이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업무나 행정 절차에 밀리지 않고 학예직들이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소장품 관리와 연구, 전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김유식**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미래를 내다본 소장품 확보 계획을 점검하고 국격에 맞는 충분한 구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나 사립박물관이 재정난으로 폐관하거나 소장 유물을 국가에 이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 소장품들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겠지요. **성낙준** 말씀하신 대로 국립박물관은 중요 문화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김세원 다른 한편으로 현재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계신 소장자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문화유산 매매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 문화유산은 지금처럼 계속 구입을 위해 노력하고, 또 수집 범위를 확장해서 새로운 소장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어 나가야죠. **이경수** 국립박물관 수장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두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증화 방식으로 수장 공간을 일부 확장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중증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진 성능과 재난 안전성 검토, 2층형 모빌랙에 대한 기술적 검증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격지 수장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소장품은 지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별도의 원격지 수장고를 개념적으로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례 조사와 연구를 기초로 새로운 수장고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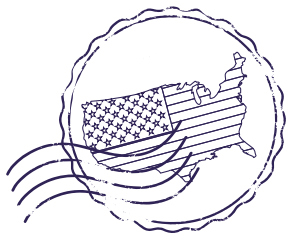
김세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품 관리 체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소장품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장품의 전시 및 보존처리 이력, 이동 기록, 이미지 등 각종 데이터를 포함한 아카이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해 구축중인 ‘아카이브 센터’가 소장품의 기록, 정보,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자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장품 관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제언드리면 최근에는 여성 직원의 작업 비중이 높아지고 작업에서 물리적인 부담이 반복되는 만큼 문화유산을 다루는 업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부 자동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장품 관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함께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요. **소재구**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에 걸맞은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국립박물관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겉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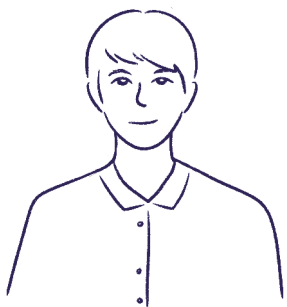
왼쪽부터 김유식 전 국립제주박물관장, 성낙준 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세원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경수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정리. 편집팀



건축의 도시 시카고에 펼쳐질 한국의 美

미국 시카고박물관
한국실 및 한국 문화유산 특별전



글. 정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국외 파견)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신문』의 'K-뮤지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하늘에 닿을 듯 이어지는 마천루로 '건축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알려진 시카고. 이곳 시카고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오대호의 미시건 호수에 접해 있는 시카고박물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보스턴박물관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손꼽힌다. 밀레니엄 파크, 클라우드 게이트, 네이비 피어, 시카고강, 미시건 호수 등 시카고 주요 명소의 중심부에 위치한 시카고박물관은 시카고 시민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 예술공간이자 휴식공간이다. 1893년에 세워진 고풍스러운 양식의 본관 건물과 이에 연결하여 2009년에 새롭게 문을 연 모던 윙Modern Wing의 건축적 조화는 이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문화 다양성, 그리고 박물관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3대 박물관'이라 불리는 명성에 걸맞게 시카고박물관은 전 세계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품과 문화유산 약 30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박물관의 인상주의 회화, 표현주의 회화 컬렉션 등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소장 수량, 예술가의 명성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에 빈센트 반 고흐,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조르주 쇠라, 오귀스트 르누아르,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에드워드 호퍼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예술가의 걸작들이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한국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시카고박물관 내 한국실 모습

2024년 11월, 시카고박물관 내에 한국 문화유산 전시를 위한 한국실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그동안 중국실 내에 위치한 몇 개의 진열장에서 고려청자 등이 일부 소개되었으나, 비로소 독립된 한국 문화유산 전시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대비 3배 정도 넓어진 전시 공간에는 한국의 불교문화, 청자를 중심으로 한 다도문화, 조선시대 사람들의 물질문화와 정신세계,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한국 현대 작가의 예술작품 등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시카고박물관이 소장한 300여 점의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 도자기, 회화, 현대미술 작품 등이 엄선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책가도 병풍, 분청사기, 백자 등이 더해져 한국 전통예술의 흐름을 더욱 풍성하고 유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시카고박물관의 관심과 수집의 역사가 100여 년 만에 그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카고박물관 한국실 조성사업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연 시카고박물관 한국미술 담당 큐레이터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박물관의 한국 문화유산 전시를 활성화하고 해외에 산재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부 최대 도시에 위치하며 세계적 수준의 전시 환경과 규모, 명성, 방문객 수 등을 갖춘 시카고박물관은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박물관이다. 2022년,



시카고박물관 모습

양 기관은 한국실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작년 11월에 시카고박물관 내 독립된 한국 문화유산 전시실이 개관하였고, 시카고박물관이 소장한 고려청자가 최근 막을 내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에 출품되어 한국에서도 이를 감상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연수 큐레이터는 미국 남가주대학 퍼시픽아시아박물관USC Pacific Asia Museum과 시카고박물관 등에서 근무하며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데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시카고박물관 내에 새로운 한국실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이강호 등 한국 전통예술과 장인정신을 계승한 현대 도예가 7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심도 있게 소개하는 특별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전문학교인 시카고예술학교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한국미술을 강의하며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 예술가들에게 학문적 지평의 확장과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시카고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속

될 예정이다. 내년 3월에 시카고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한국 문화유산 특별전 <Korean National Treasures: 2,000 Years of Art>가 개최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성황리에 전시되었던 고 이견희 회장의 기증품이 대규모로 시카고를 찾아 한국 전통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전시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7점, 보물 10점을 포함하여 총 128건 250점의 주요 한국 문화유산이 출품되어 시카고박물관 찾은 미국 시민과 전 세계인에게 소개된다.

1893년 5월, 15명의 조선인이 이곳 시카고를 찾았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46개국이 참여하고 2,700만 명의 관람객이 모인 '시카고 만국 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에 참가한 것이다. 조선의 대표단은 가마, 의복, 갑옷, 수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조선의 일상과 역사를 알렸으며, 함께 온 악공들은 궁중음악 연주로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했다.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과 국제적 위상은 오늘날과는 비할 바가 아니나, 120여 년 만에 다시 시카고에서 만나는 한국 문화유산 특별전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집중되었던 세계인의 관심과 애정을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로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금동보살삼존입상
삼국, 6세기
금동
높이 9.1cm
국보
전회4
이견희 기증



인왕제색도
정선(鄭麟) (1676-1759)
조선, 1751년
종이에 먹
화면 세로 79.2cm, 가로 138.0cm
국보
전회1
이견희 기증

꿈을 꾸는 어린이에게, 꿈을 찾은 어른이 전하는 이야기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참가자 황정훈·황혜림 가족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참가자 황정훈·황혜림 부녀

사진 제공. 국립경주박물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문화유산의 참된 가치를 심어주고 싶었던 어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1954년 10월 10일 개교한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가 올해 72년을 맞았다.

여러 스승과 수많은 제자가 가르침과 배움으로 만나 함께 잇고 쌓아 온 시간 속에 황정훈·황혜림 부녀가 있다.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 시작한 아버지의 꿈은 고스란히 딸에게로 이어졌다.

Q 두 분은 부녀이자 선후배이기도 한데요,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황정훈 제가 초등학교생이던 1981년,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28기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 근무하던 막내 이모가 소개해 주셔서 다니게 됐는데, 다니면서 참 좋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나서 제 아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황혜림 아버지에게 추천을 받아 2013년 60기로 참여했어요. 먼저 다니고 있던 친언니를 따라서 가보기도 했고, 저 역시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죠. 그때 우리 가족은 경북 포항에 살고 있었는데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 수업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Q 천년고도 경주 인근에 사셨으니,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도 많고, 관심도 컸을 듯합니다.

황정훈 1970~80년 경주의 고분은 아이들의 미끄럼틀이었고, 강가에서는 토우 조각이 나오고 반월성 풀숲에는 기와 조각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습니다.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를 다니고 난 뒤부터는 별생각 없이 접했던 돌맹이 하나, 기와 조각 하나에도 신라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경주의 신라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우리 아이들이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 다닌 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박물관 관람이 더 흥미로워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경주박물관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공주박물관을 관람하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박물관을 찾는 횟수는 줄어두고 있지만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야 할 필수코스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혜림 주말에는 불국사에 놀러 가기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노라면 첨성대가 보이는 경주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문화유산이 좋아졌어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좋은 곳이라서 자주 방문했죠. 학교에서도, 가족과도 자주 가서 익숙한 데다가 고등학생 때는 박물관에서 봉사활동도 해서 더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고 재미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황정훈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고청 윤경렬 선생의 강의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며 열정적으로 신라의 전설과 부처의 이야기를 전해주던 선생의 하얀 도포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엮은 『신라이야기』는 아직도 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소장품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잊지 못할 기억이죠.

황혜림 저는 특히 문화 수업이 좋았어요. 야외 수업을 했던 날이 특히 기

억에 납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한 ‘화전^{화전} 만들기’ 수업에서 조별로 직접 화전을 만들어 먹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열두 살 때라 요리 실력이 많이 서툴렀지만 친구들과 직접 꽃을 따서 반죽을 부쳐 먹었던 기억이 인상 깊어 남아있어요. 박물관 내부를 탐험하던 활동들도 떠오릅니다. 특정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미션을 받은 적도 있고 복원하는 과정을 보기도 했죠. 그런 다양한 활동이 있었기에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키울 수 있었어요.

Q 황혜림님은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 참여하면서 진로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황혜림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뭇 딱딱할 수 있는 고대사를 초등학교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초등학교생들이 관심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수업해 주셨어요. 지금 전공자의 시선으로 보아도 참 어려운 일인데, 당시 저는 매우 즐겁게 참여했었어요. 이 기억들이 저에게 ‘누군가에게 즐겁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주었어요. 현재 저는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이어온 사회지식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또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Q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의 역대 ‘어린이’로서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황정훈 지금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보조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VR 제작으로 신라의 유적을 조금이라고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혜림 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처럼 교과서의 글자로 배우는 지식이 아닌 생동감 있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며 역사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올바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Q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게 바라는 점을 들려주세요.

황정훈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지만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는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장기 프로그램만이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는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나타날 테니까요. 경주 지역이 아닌 타지의 아이들을 위한 1주일 이내의 단기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나 서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역사를 후손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국립경주박물관의 많은 관계자 덕분에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어지길 바랍니다.

황혜림 K-컬처의 위상에 걸맞게 경주도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낯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국을 더욱 사랑하고 경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도 자연스레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또한 타지역과 연계해 전국, 특히 경북 지역에 있는 신라의 유적과 유물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더욱 뜻깊은 활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과서를 벗어나 딱딱하지 않은 교육을 경험하고 싶은 모두에게 경주어린이박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화전 만들기’ 수업(2013년)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60기 입학식

관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많은 어린이가 그곳에서 꿈을 키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가 아니라도 국립경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상시 관람이 가능하고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많으니, 아이들과 함께 찾으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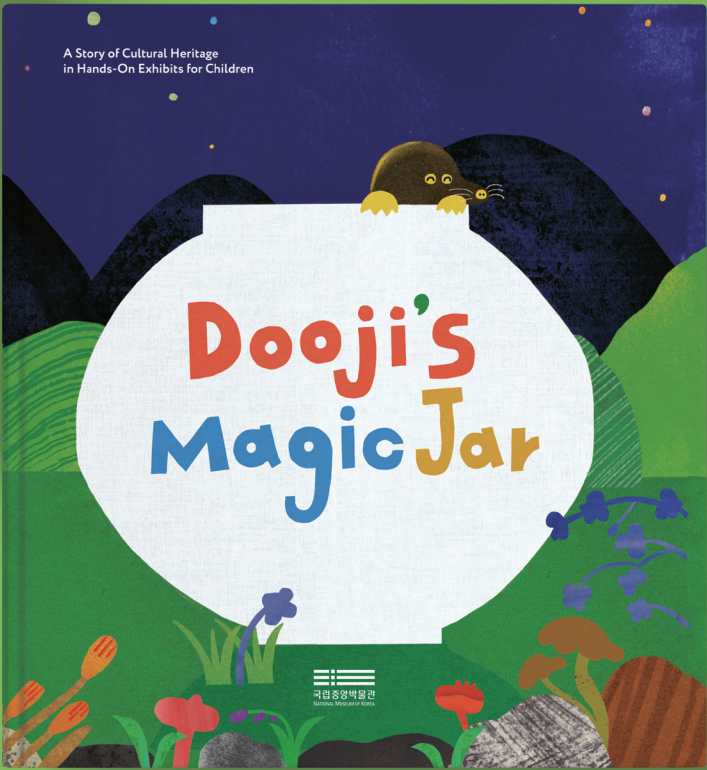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는 1954년 10월 개관하면서 ‘첫째,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둘째,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은 절대 받지 않는다. 셋째, 수업은 존댓말로 한다.’라는 규칙을 세워 운영해 오고 있다. 초대 교장은 진흥섭 국립경주박물관장이 맡았고, 교가는 1955년 윤경렬 선생이 작사하고 윤이상 선생이 작곡했다. 1959년 윤경렬 선생이 2대 교장으로 취임해 1986년까지 재임하면서, 1982년에는 중고등부와 일반부를 신설했고 1998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되었다. 명실상부한 박물관학교로 인정받아 역사를 이어오며 올해 72기 입학생 50명을 모집하였다.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된 교육 일정은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20차시 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과정은 신라 역사와 문화, 경주 문화유산, 세계유산의 학습과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신라와 경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사고력과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에 대한 공감력을 높여보는 시간. 어린이들이 학교 밖의 학교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 꿈을 꾸고,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

정리. 편집팀

보물을 찾아 떠나는 두지의 좌충우돌 모험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물 속 문화유산 활용 그림책 「두지의 마법 항아리」



「두지의 마법 항아리」 **즐거리** 두지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마법 달항아리를 갖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달항아리는 커다랗게 변했고, 두지는 땅 속에 숨겨 두었던 11가지 보물을 커다래진 달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달이 기울자 달항아리가 점점 작아졌고, 달항아리 속에 너무 좁아 답답해진 보물들은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두지는 보물들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고, 숲속, 가마터, 대장간, 바위산, 냇가 등 곳곳에 숨어 있던 11가지 보물을 찾아냈어요. 보물을 모두 찾은 두지와 다시 보름달처럼 커다래진 달항아리는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는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이야기가 살아있는 그림책 「두지의 마법 항아리」를 발간하였다. 이 그림책은 2024년 제작된 영상 동화 〈두지의 마법 항아리〉를 바탕으로, 유아기부터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교육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두지의 마법 항아리」는 독자들이 문화유산에 생명력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작 동화이다.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물 속 문화유산 12종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가미하여,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야기는 어린이박물관의 캐릭터 ‘두지’가 마법의 달항아리에서 탈출한 11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로, 이 책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나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문화유산을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한다. 11가지 보물은 각각 개성과 매력을 지닌 ‘등장인물’이 되어,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물건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삶과 가치가 담긴 소중한 자산임을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림책 속에는 백자 달항아리, 수레바퀴 모양 토기,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청동경,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등장한다. 독자들은 두지와 함께 11가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제작 과정과 특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특히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달항아리’는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함께 신비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림책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창의적

인 이야기 구성,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장, 생생한 표정의 캐릭터와 따뜻한 색감의 삽화가 돋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아들이 이야기에 쉽게 몰입하게 하며, 문화유산과의 친밀감을 높인다.

이번 그림책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 언어로 제작되어 국내 어린이뿐 아니라 외국인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두지의 마법 항아리」는 전국 주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문화유산 교육 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전시 교육 프로그램, 독서 지도 활동, 학교 현장의 수업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통합 플랫폼 ‘모두’에 게시된 온라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 풍성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유산을 일상 속 친근한 배움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림책 「두지의 마법 항아리」를 만난 유아들이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더욱 친근하고 흥미롭게 느끼길 바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두지의 마법 항아리」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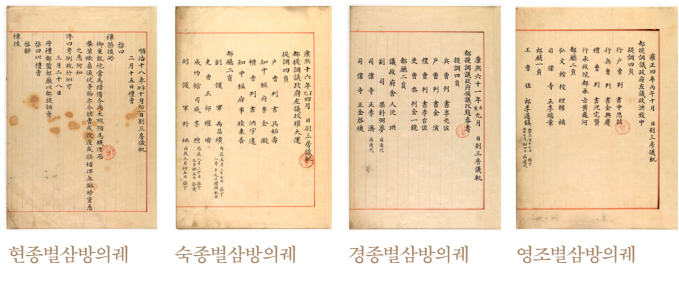


영문

글. 유수경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국역본 온라인 공개

유일본 『별삼방의궤別三房儀軌』 국역 첫 공개



현종별삼방의궤 숙종별삼방의궤 경종별삼방의궤 영조별삼방의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중 유일본 의궤의 국역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역을 완료한 『별삼방의궤』를 공식 누리집(www.museum.go.kr/uigwe)에서 공개했다. 2011년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온 후 관련 조사 연구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별삼방의궤』는 새롭게 즉위한 국왕이 행차할 때 사용할 가마와 깃발 등 물품(의장儀仗)의 제작을 담당했던 ‘별삼방別三房’이라는 임시 조직의 업무 내용과 돌아가신 선왕의 삼년상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국왕의 의장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별삼방이라는 조직은 조선시대 현종·숙종·경종·영조 4대에만 존재하였다. 4대에 걸친 『별삼방의궤』 4책은 모두 유일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아 첫 국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개로 일반인도 의궤의 내용을 쉽게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한문으로만 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던 『별삼방의궤』 국역본을 원문 이미지, 텍스트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중 유일본 의궤의 국역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새롭게 조성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외규장각 의궤실에서는 3개월마다 새로운 의궤를 전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역한 『별삼방의궤』 4책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배우 강훈 제10대 홍보대사 위촉

제9대 이어 연임, 홍보 활동 기대



국립중앙박물관은 배우 강훈을 제10대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지난 4월 8일 위촉식을 가졌다. 이에 강훈은 제9대에 이어 제10대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온 강훈은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영상 촬영을 비롯해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 ‘K-CULTURE DAY’ 신규 콘텐츠 공개

신세계면세점과 한국 문화유산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



국립중앙박물관과 신세계 디에프는 신세계면세점 본점과 공개한 새로운 콘텐츠 외에도 신세계스퀘어, 인천 국제공항에서 양 기관이 협업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제행사, 해외문화원, 공공기관 등 공공 향유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소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세계디에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K-CULTURE DAY’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선보인 ‘움직이는 글자, 조선의 활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82만 점의 조선시대 활자를 소재로 한 콘텐츠이다. 활자를 3D 스캔하고 모델링하여 활자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영상 콘텐츠는 이병우 음악감독의 사운드가 더해져 작은 활자에 강렬한 이미지를 입혀준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실감 전광판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활자화하여 전송하는 체험형 콘텐츠로서 매일 만나볼 수 있다. ‘K-CULTURE DAY’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신세계면세점 본점 10층 아이코닉존에서 운영한다. 신세계스퀘어와 인천공항 제1터미널 K-컬처 뮤지엄 4관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예술축제 개최

‘2025년 박물관문화향연’ 11월까지 26회 공연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예술축제 ‘2025년 박물관문화향연’(이하 ‘박물관문화향연’)을 박물관과 소속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박물관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관람객 대상 무료 공연으로 올해는 4월 19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지역 국립박물관까지 총

26회 공연을 개최한다. ‘박물관문화향연’은 계기·계절별로 국립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하는 ‘국립의 품격’과 박물관 유물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 문화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역사에서 문화로’, 장애인 예술가 초청 공연인 ‘함께해요 박물관’ 등 3가지 주제로 마련하였다. 8월 15일 열린마당에서 광복 80주년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국립합창단, 국립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국악관현악단 등 수준 높은 예술단체 공연이 5월, 6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장애 예술가들의 뛰어난 연주를 뽐내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과 시각 장애 예술인들의 요들송 공연은 9월 관람객을 찾아가는다.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토요일의 박물관’ 운영

국보·보물 등 전시실별 문화유산 6종 즐기기



국립춘천박물관은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2·4주 토요일에 ‘토요일의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어린이가 상설전시실 대표 전시품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춘박 명품 상자’ 만들기 키트를 제작했다. 대표 전시품인 중도 유적 출토 토기, 선림원 터 동종, 한송사 터 보살상, 단종 어보, 금강산 암자 모양 연적,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 관련 퀴즈 활동지에 해당 전시품 모양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강원도를 이해하고 선사부터 근세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고안했다. 온 가족이 함께 전시품 퀴즈 활동지를 풀고 이를 조립해 ‘나만의 춘박 명품 상자’를 완성하는 키트다. 이러한 활동으로 어린이 관람객이 전시품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 참가는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2·4주 토요일 박물관 본관 문화놀이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제29기 다문화아카데미’ 개최

〈김해! 다문화 특구〉 우즈베키스탄-인도-중국 3국 특집



국립김해박물관은 지난 4월 30일을 시작으로 5월 14일, 5월 21일 오후 2시 총 3회에 걸쳐 성인강좌 ‘김해! 다문화 특구-제29기 다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제29기 다문화아카데미’는 우즈베키스탄-인도-중국 3국 특집으로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을 김해에 초청해 아시아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가야문화를 주제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시아 문명 교류의 흐름을 살펴본다. 제1강은 동국대학교 교수로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장을 지내며 평생을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힘쓴 윤명철 교수(우즈베키스탄 국립사마르칸트대학교 고고학과)가 ‘김해 지역의 국제성-중앙아시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제2강에서는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한 불교미술사학계의 세계적인 학자 이주형 교수(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가 ‘인도에서 만난 동과 서’를 주제로 고대 인도에서 전개된 동서 문명의 교류상을 살펴봄과, 마지막 제3강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지낸 중국 최고 전문가 김태만 교수(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가 ‘따로 또 같이: 다민족多民族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전국 국립박물관 가정의 달·어린이날 행사 개최

어린이 위한 풍성한 이벤트로 즐거운 축제 한마당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국립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에서 는 5월 3일과 4일 가족음악극 ‘정가네 늘보’가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객석나눔’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가족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박물관 일원에서 ‘어린이축제’를 마련하여 ‘버블쇼’를 시작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줄 전북소리숲오케스트라의 특별 공연 등을 선보인다. 국립익산박물관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박물관 본관과 미륵사지 일원에서 어린이날 문화행사 ‘어린이는 자란다 우리들은 잘한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미륵사지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진주박물관,

‘제34회 문화사랑 어린이 그림대회’ 성료

우리 문화유산과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



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더 친숙하게 마주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실력을 뽐냈다. 심사 결과는 5월 26일 국립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으뜸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하여 50여 개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입상 작품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진주박물관 역사문화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2025.3.18.~2025.4.15.)				
보임	2025-04-01	학예연구관 최정일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국립공주박물관장
	2025-04-01	학예연구관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2025-04-01	학예연구관 양성혁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2025-04-01	학예연구관 오세연	국립중앙박물관 휴직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2025-04-01	서기관 이성배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전임	2025-03-31	행정주사보 유승현	문화체육관광부 휴직	→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전보	2025-04-01	행정주사보 이경순	국립제주박물관 휴직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승진	2025-03-22	방호서기 김민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방호주사보
임용	2025-04-01	운전서기 양성현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운전주사보
휴직	2025-04-02~2025-06-30	방호주사보 최훈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5 MAY	6 JUNE	7 JULY	8 AUGUST	9 SEPTEMBER
중앙	+ - ÷ ×(알기 쉽기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2024.11.19.~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2025.4.30.~9.14.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2025.6.10.~8.31.				
경주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 2018.1.26.~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5.5.3.~8.24.				
	〈일본 미술의 재발견(가제)〉 2025.6.17.~8.10.				
광주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 2024.1.2.~				
	〈참방참방 획획〉 2024.12.5.~				
전주	서예문화실 재개관 2025.6.27.~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 2025.6.27.~10.12.				
	고 이견희 회장 기증 석조물 2024.12.6.~				
대구	고 이견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Hello 향로! 백제금동대향로의 초대〉 2025.1.2.~				
부여	〈산화코발트, 기증품에 스며든 푸른빛〉 2025.4.8.~2026.6.28.				
	〈왕과 왕비의 보물을 찾아라〉 2025.1.2.~8.10.				
공주	국가귀족유산 미리보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재발견〉, 〈이록집중 문화유산〉 2024.11.23.~				
	〈육의 석조문화유산 정월~수호의 정월〉 2024.9.10.~				
	〈천년 진주, 진주목 이야기〉 2025.5.20.~8.24.				
청주	국가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영유아체험실〉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거울, 시대를 비추다〉 2025.3.21.~7.20.				
김해	〈크리스탈(水晶) 가아(加耶)〉 2025.5.19.~7.31.				
	〈안녕, 제주!〉 2021.11.26.~				
제주	〈동자상, 조각 정원〉 2022.11.11.~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2024.8.13.~				
춘천	〈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				
나주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2025.4.29.~7.27.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5.25.				
익산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5.6.3.~8.31.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중앙	〈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5.8.(목)~5.31.(토)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공간 오감
	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구	5.7.(수) 14:00~17:45	교육관 2강의실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5.12.(월)~5.28.(수) 매주 월·수 10:00~10:40 / 11:00~11:40	온라인
	명사와의 정담(어린이에 관한 정다운 이야기)	5.7.(수), 5.14.(수), 5.21.(수), 5.28.(수) 20:00	온라인(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네이버 TV 채널)
	[유아 단체] 손으로 만나는 옛날 물건 특별전 〈마나 모아나〉 가족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오디오가이드, 패널	5.13.(화), 5.20.(화), 5.27.(화) 10:20~11:10 5월 중 상시	어린이박물관 쓱쓱배움터 특별전시실 2
경주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5.10.(토)~5.31.(토) 매주 토	수목당
	박물관 백세 청춘 마당	5.8.(목), 5.22.(목) 14:00~16:00	수목당
광주	무력무력! 문화유산 다하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나의 짝궁, 문화유산 찾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쓱쓱! 꼬마 도공 탐험	5.14.(수), 5.21.(수), 5.28.(수)	어린이박물관
	박물관은 내 친구	5월 중	상설전시실 및 체험학습실
	제19기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고려청자 몽타주	5.10.(토), 5.24.(토) 5.13.(화), 5.27.(화)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전주	박물관에서 꿈꾸는 희망	5월 중	체험학습실
	삼자가 열리면	평일 10:00~13:00	어린이박물관
	우리 마을 보물찾기	5월 매주 토	상설전시실
	문방사우를 찾아라!	5월 매주 수 10:00~11:00	어린이박물관&교육실
	[유아 단체] 개구쟁이들의 박물관 여행	5.1.(목)~5.29.(목) 매주 화·목 10:30~11:30	꿈마루
대구	[초등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단추	5.2.(금)~5.30.(금) 매주 수·금 10:00~11:30 5.2.(금)~5.30.(금) 매주 토 14:00~16:00	문화사랑방·강당 해설관 로비
	5차 온(ON) 가족 신선놀이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5.23.(금)~5.26.(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5.1.(목)~5.31.(토)	온라인 온라인
부여	백제금동대향로의 선물, 힐링&치유	5.21.(수) 19:00~21:00	전시실 및 로비
	보고 듣고 느끼는 호기심 박물관	5월 중 예약제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5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함로 속 친구와 인사해요!	5.29.(목) 10:00~11:30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한국의 색·향·미	5월 중 예약제	교육실
공주	희망박물관 더불어 좋은 세상!	5월 중 예약제	교육실
	유 퀴즈? 관찰하GO 생각하GO	1.2.(목)~12.31.(수)	상설전시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백제 무령왕릉	3.27.(목)~7.17.(목)	온라인
	모두 같이 즐겨요	4.4.(금)~11.28.(금)	세미나실, 전시실
	제7기 공주박물관대학 인문학강좌	5.7.(수)~7.30.(수)	강당
진주	제21기 상반기 박물관대학 〈진주, 천년을 이어오다〉	5월 매주 목 14:00~16:00	강당
	제14기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내 미래 직업은 박물관 '큐레이터'〉	5.10.(토), 5.17.(토), 5.31.(토) 9:30~12:00	교육실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5월 중 상시	전시실 2층 체험실
	뽕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5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역사문화홀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5월 매주 수·금 10:00~11:3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전시실
청주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5월 매주 화~금 10:00~12:00	강당, 전시실
	취약계층 초청	5월 중	교육실, 전시실
	발달장애아동 대상 교육-박물관에서 그릇을 만나요	5.13.(화)~5.29.(목) 매주 화·목 10:00~11:30	이문학교
	제23기 박물관 연구과제	5.15.(목) 14:00~16:00	소강당
	제17기 어린이 토요박물관학교	5.17.(토) 14:00~16:00	세미나실
김해	가야건축실화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인형극	5.2.(금), 5.9.(금), 5.15.(목), 5.22.(목) 10:30~11:30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특별전 연계 〈크리스탈 가아〉	5.10.(토), 5.24.(토) 10:00~11:0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안녕, 가아! 해상왕국편〉	5.20.(화), 5.27.(화) 10:00~11:3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제29기 다문화아카데미: 우즈베키스탄-인도-중국 특집〉	5.14.(수), 5.21.(수) 14:00~16:00	강당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5.28.(수) 14:00~16:00	강당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탐구생활	5월 중 수~금	교육실
	오명가명 박물관	5월 중 화~금	교육실
	[관람객]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상시	문화놀이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춘박 명품 토틀아보기〉	5.28.(수)	상설전시실
	[단체]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처음 만나기〉	5.2.(금), 5.9.(금), 5.13.(화), 5.14.(수), 5.16.(금), 5.20.(화), 5.21.(수), 5.23.(금), 5.27.(화), 5.28.(수), 5.30.(금)	전시실, 숲속배움터
춘천	인문예술 힐링 강좌 〈인류와 음악〉	5.29.(목)	본관 강당
	[어린이 동반 가족] 〈토요일의 박물관〉	5.10.(토), 5.24.(토)	문화놀이터
	[유아]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5월 매주 수 10:00~11:20	체험학습실, 전시실
	[초등/청소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5월 매주 화·목·금 10:00~11: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소외계층] 함께 가요, 박물관 나들이	5월 매주 화~금 13:30~15:00	체험학습실, 전시실
나주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5월 매주 토 10:30 / 14:00 / 16:00	어린이박물관
	[가족] 종이풍선에 담긴 문화유산	5월 매주 일 10:30 / 14:00 / 16:00	어린이박물관
	구성구석 미륵사지 탐험대	5.3.(토)~5.24.(토) 매주 토	전시실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5.3.(토)~5.25.(일) 매주 토·일·공휴일	상설전시실
	둘 하나, 마음 하나, 짝Go 짝Go 미륵사지 석탑	5.4.(일)~5.25.(일) 매주 일	어린이박물관

따스한 봄빛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연

푸르름이 짙어 지는 5월, 박물관 마당에는 문화의 온기가 가득 찬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프로그램 박물관문화향연이 다시금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무대로 열린마당을 생동감 있게 채운다.



국립합창단

일시: 2025.5.10.(토) 15:0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합창단으로 정기공연, 기획공연, 해외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중세 음악부터 현대 음악, 창작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합창의 저변 확대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다미로아트컴퍼니

일시: 2025.5.17.(토) 15:0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안다미로아트컴퍼니는 2014년 서울에서 창단된 현대무용 단체로 현대무용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객에게 풍성하고 재미있는 현대무용을 선사한다. 대한민국은 공연 중 모다페,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대한민국무용대상, 전국무용제, 미국 뉴욕덤보댄스페스티벌 등 국내외 대표 축제들에 초청되었다.



서울오케스트라

일시: 2025.5.24.(토) 15:0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서울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접목한 새로운 기획 연주회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보다 쉽고 유익한 종합예술공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시에 정통 클래식 공연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2025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21회

18:00~18:30

19:00~19:30

5.7.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2	조각·공예관	야외전시장
문화유산 속 마음 어린이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과 이영신	특별전 <마나 모아나-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1) 특별전시실 2 전시과 백승미	조선시대의 불교조각 불교조각실(301호) 유물관리부 박아연	갈항사 삼층석탑, 그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야외전시장 행정지원과 임재완

822회

18:00~18:30

19:00~19:30

5.14.

선사·고대관	서화관	선사·고대관	세계문화관
백제의 관과 관식 백제실(106호) 유물관리부 구문경	왕이 보는 책, 외규장각 의궤 외규장각 의궤실(201호) 고고역사부 김진실	고대 가야와 왜의 교류 가야실(107호) 유물관리부 이동관	손 안의 부처- 미안마의 전불彌佛 인도·동남아시아실(308호) 세계문화부 노남희

823회

5.21.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특별전시실 2	세계문화관
국가형성기 대외교류와 낙랑 고조선·부여·삼한실 (104호) 고고역사부 이나경	한국의 범종 금속공예실(302호) 유물관리부 김민송
특별전 <마나 모아나-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2) 특별전시실 2 전시과 백승미	한·중·일의 장황 중국실(309호) 보존과학부 장연희

824회

18:00~18:30

19:00~19:30

5.28.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중·근세관	특별전시실 2
무령왕릉, 발굴과 유물 이야기 백제실(106호) 미래전략담당관 나선민	백자의 아름다움 분청사기·백자실 (304·305호) 교육과 강경남	조선의 화력, 승자총통 조선2실(118호) 보존과학부 허일권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3) 특별전시실 2 전시과 이태희



webzine.museum.go.kr

포지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정담^{情談}’과 ‘상상^{想像}’이 펼쳐지는 어린이·가족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과거에 어린이였거나 현재 어린이기에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다정한 이야기,

상상하며 즐기는 공연·전시·체험으로 이번 한 달을 채워나가려 합니다.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할 국립중앙박물관의 푸르른 5월을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